

# 사패산 터널구간, 친환경 안전공사 당부

## 김문수 경기도지사, 터널구간 공사현장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서울의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구간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공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지사는 1월11일 송추의 사패산 터널 건설현장 사무소를 방문해 김재영 한국도로공사 구리퇴계원 건설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올해 12월 완공되는 터널의 내부 벽면공사 현황을 시찰했다. 김지사는 "사패산 구간 7.5km 가운데 4km구간에 해당하는 터널구간의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GS건설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김지사는 "터널 내부 벽면의 안쪽으로 흐르는 물이 굉장히 깨끗하도록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며 "최고로 깨끗한 물인 만큼 그 물을 활용할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친환경 공사에 대한 두터운 믿음을 보였다.

또 김지사는 "터널도 완전히 풀려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니 크게 기대된다"며 "계다가 편도 4차선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폭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월11일 서울의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터널이 된다니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지사는 터널의 콘크리트 공사 시공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터널 구간을 제외한 교량 구

간도 친환경 건설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경기도 민선4기 조직개편(안) 마련

## 성과위주 인력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수요 충족

경기도는 '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연계하여 도 조직운용방향을 작지만(Small) 강한(Strong) 조직, 스피드(Speed)한 행정실천으로 정하고 1국3과34명을 보강하는 소폭적인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大綱 개념에 입각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칸막이를 제거하고, 분산배치되어 있는 유사기능 등을 통합 일원화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을 높이고, 중첩되어 있는 행정지원 인력을 주택, 교통, 수질 등 당면 현안 추진에 배정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증원인력을 축소했다.

실·국단위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주거대책본부(3급)를 '09.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도정 핵심 개발사업인 도시주택국의 뉴타운, 광교, 평택개발업무등을 총괄조정·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의 진행 중이다.

아울러 2청 환경관리국과 지역개발국을 도시환경국과 교통관리국으로 재조정하는 등 2청의 지역개

발과 도로교통기능을 확대·강화했다.

과·담당관(4급)에 대한 개편 내용으로는 6개 과·담당관을 신설하고 3개과 2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 2청의 북부여성회관(5급)을 4급 북부여성비전센터로 확대 보강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과·담당관 6개로 비전경영담당관, 홍보담당관, 철도청만과, 축수산산립과(2청), 도로철도과(2청), 수질관리과(팔당) 등이다.

통합·폐지되는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은 혁신본원과, 2청 환경관리과 + 2청 환경보전과, 종지관 리소+종자보급소 → 2청 환경과,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2과) 보강이다.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업소 2개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과학기술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광교개발사업단)등이며 명칭이 변경되는 과·담당관은 본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교통개선과, 도시정책과, 뉴타운사업단이며 2청은 산업지원과, 농정과, 사회복

지과, 환경과, 특별대책지역과, 교통과, 재난관리과이며 직속기관·사업소는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등이다.

담당·팀장(5급)개편 내용은 신설되는 담당·팀장 : 28개, 통합 및 기능조정 담당·팀장 : 30개, 분산 배치된 유사기능 편제조정으로는 국가기반보호(재난총괄과), 한민정책(철도청만과), 고객만족(총무과), 혁신지원(행정혁신과) 등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분기1회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행정수요 변동에 맞게 과 단위이하 행정기구와 인력을 재설계, 재배치 할 방침이다.

특히 조직운용에 성과개념을 도입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총액인건비제 취지에 맞는 인력관리 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

## 의정부시, 행정서비스 실천 위해

의정부시는 고객을 향한 감동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기쁨 주는 행정, 미소짓는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이동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소비자 상담실은 소비자 피해상담 및 가전제품 무료정비를 실시하게되며, 올해 대상자 접수를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 관내 아파트 단지 및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소비자 상담실 참가 신청을 시정 및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1994년부터 시작한 이동소비자 상담실은 고객을 향한 감동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기쁨 주는 행정, 미소짓는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건립 된지 5년 이상 된 대규모아파트 단지 및 저소득층 거주 임대아파트 기타 A/S취약지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상담 및 가전제품 수리활동을 펼

친다. 작년에는 총2천25건의 소비자 피해상담 및 443건의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등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해 왔다.

삼성, 엘지, 애니콜 등 3개 서비스센터 수리요원과 의정부YMCA상담요원 등이 참여해 수리비 1만원 미만의 고장난 가전생활용품을 무료로 정비해 주고,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 피해상담과 생활불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내 아파트 163개 단지 7만8천442세대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참가신청이 많을 경우 운영횟수 증가와 개선사항 등 설문문을 통해 문제점과 세부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의정부시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 모습



## 의정부시, 미소(微笑)거울로 웃음 행정서비스 제공

사람이 만나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불과 6초 정도라고 한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결정되는 것에 착안해 의정부시가 첫 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타 행정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기쁨 주는 행정, 미소 짓는 시민'의 혁신비전을 실천하고, 고객에게 부드러운 첫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10일 탁상용 미소거울을 제작, 전 직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거울에는 "웃는 당신이 아름답다"와 혁신비전인 "기쁨주는 행정, 미소짓는 시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시는 이 거울을 통해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기 전에 수시로 웃는 모습을 훈련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올바른 응대와 웃음을 통한 유익한 사고를 유발하고, 스스로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007 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2월 수월리 리치호텔에서 열린 '2007경기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여성과 어머니의 힘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부시 동사무소 신년인사회

김문수 의정부시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한해는 민선3기 시정에서 추진해왔던 각종 시책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민선4기 시정으로 이어지는 현안사업의 실질적 시작을 준비한 한해로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말했다."

# "작은 손이라고 정성도 작지 않아요!"

## 어린이집 원아들 어려운 가정에 백미 전달



의정부시 신곡동에 소재한 산새어린이집 원아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백미 20포를 기탁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주었다.

산새어린이집 원아들은 직접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만들어 작년 12월 한달 동안 용돈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 원아들이 모은 성금은 46만원이 되어 백미 20포를 구입, 지난 10일 신곡동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산새어린이집 라종민 원장은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적은 돈이 송구스럽지만 어린 아이들의 정성으로 마련되었으므로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원아들로부터 백미를 받은 노애옥(48·만성질환자)씨는 "뚝뚝 불편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내가 받게 되어 죄송하다"며 "경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아이들도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의정부시, 반찬 나눔운동 전개

## 신곡1동 새마을부녀회



의정부시 신곡1동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어렵게 살고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반찬을 담아 직접 나누어 주고 있다. 김영숙 부녀회장을 비롯한 부녀회원들은 회비를 모아 직접 회원을 반찬을 만들어 관내 홀로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이웃사랑 나눔실천을 직접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 어렵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자 실시한 반찬 나눔행사는 홀로 사시며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에 2회 지속적으로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에는 특히 추위로 인해 난가기도 힘들고 반찬을 만들기도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30세대에

반찬을 만들어 전달해 주었다. 김영숙 부녀회장은 "직접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만든 반찬으로 추운겨울 어렵게 살고있는 독거노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 관내 어렵게 살고있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랑나눔 쌀항아리사업 추진

## 의정부3동,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의정부3동사무소는 어려운 이웃돕기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사회 각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사랑나눔 쌀항아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랑나눔 쌀항아리 사업은 동사무소 입구에 항아리를 설치해 불우이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쌀을 넣으면 생계가 어려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이 매일 한 바가지의 쌀을 퍼가도록 하고 있다.

항아리에 쌓인 쌀을 퍼 가면 지속적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날로 후원자가 늘어나고 있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우리사회의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관내 유관단체의 정기적인 물품지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통정협의회는 매일 쌀 20kg 1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등 각 단체에서도 쌀을 제공해 주고 있어 현재까지 20kg

포장 총 53포가 접수되어 사랑나눔 쌀항아리가 결실아동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민들도 이러한 온정의 손길에 동참해 이쁨을 밝히지 않고 사랑나눔 쌀항아리에 조용히 쌀을 채우고 가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잇을 수 있었다.

한편, 조기신 의정부3동장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듯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주민들의 작은 정성과 관심이 겨울 추위를 녹이는 물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며 "이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市, 전경 볼 수 있는 낭만 정류장

## 의정부시, 버스정류장 40개소에 설치

의정부시는 시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20여개소에 대형 시전경 사진을 게재해 시의 발전상 및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군사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전경과 문화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420여개소에 설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버스 승강장에 시의 발



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전경 및 도봉산 전경, 관내 관광안내도 등을 부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를 기다리는 지루함을 달래고 군사도시 탈피와 품위와 격조 있는 문화도시 시민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버스 정류장에 대하여 시전경 및 도봉산 전경, 관내 관광안내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금의·가능지구 건축허가 制限

의정부시는 도시재정비 추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에 의거 도시재정비 추진지구지정을 위한 검토대상 구역내 건축허가를 건축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제한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재정비 추진 예정지구내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일정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발표된 제한구역은 총면적 23만18천340㎡로써 금의도시재정비 추진지구 검토대상지인 의정부3동, 금의동 일원의 108만18천740㎡와 가능도시재정비 추진지구 지정검토 대상지가 12.23동 일원 12만19천800㎡이다.

제한대상 건축물(변경)은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 제8조),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등이며, 공고 이전에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중인 건축허가 및 신고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